

양촌선생(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15

홍수라는 재난은 옛부터 비가 많이 온 결과라고 설명한다. 호문 정공(胡文定公)이 ‘춘추’에 전을 쓰면서 홀로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물결이 그 돌아갈 바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 말에 따라 고찰해 보니 <요전>에서 요 임금이 “상상홍수방할(湯湯洪水方割 : 넘실대는 홍수가 바야흐로 폐해를 끼친다)”이라고 하였고, <대우모>에서 순 임금이 “홍수경여(滄水傲予: 홍수가 나를 경계시킨다)”라 하였고 ‘익직’에서 우 임금이 “홍수도천(洪水滔天 : 홍수가 하늘에까지 넘실거린다)”이라 하였지만, 모두 비와 관련지어서는 말하지 않았다. 유독 맹자가 또한 말하기를, “당요지시, 수역행(當堯之時, 次遊行 : 요 임금 때 물이 거슬러 흘렀다)”이라 말하였고, 또한 비와 관련지어서 말하지 않았다. 다만 <순전>에서 “납우대륜, 열풍뇌우불미(納于大麓, 熱風雨弗迷 : 순 임금을 큰 산 기슭에 들어가게 하시니 맹렬한 바람과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와도 혼미하지 않았다.”라고 한 말에 비에 대한 말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맹렬한 바람과 천둥

번개는 비록 후세의 일기인 하지만 오래 계속된 것은 아니고, 요와 순 임금 때에는 늘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개 물은 조금씩 시작되는 것에서 진행되는데, 미미한 물방울에서 시작하여 큰 강과 바다까지 이른다.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산과 골짜기에서 흘러나와 요 임금 때에 이르러선 그 형세가 이미 더 이상 물이 흘러갈 수 없을 만큼 짙 찬 상태였다. 하류(下流)는 진흙에 막혀 범람되고 옆으로 흘렀으니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해가 더욱 심하다. 그러므로 요 임금이 근심하여 곤(鯨)을 시켜 치수사업(治水事業)을 시켰으나 9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하였고, 우가 뒤를 이어 일어나 또 8년이 지난 후에야 공을 이루었다. 만약에 이처럼 9년 동안 늘 비가 왔다면 그 재난이 매우 크고 그 해가 매우 위급하니 성인이 반드시 환난을 구하는데 급히 서둘러 이에 대처할이 있어야 한다. 천천히 9년 동안 3번 성과를 살핀 연후에 명령을 바꾸어 우 임금을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9년 후에 만약 비가 개었다면 물의 재난이 저절로 그쳤을 것이고, 우 임금 역시 8년 동안을 외지(外地)에서 막힌 데를 소통시키고 뚫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 임금이 치수 사업을 일으킨 후에도 여전히 비가 계속 내렸다면, 요 임금 9년 동안 비가 왔다고 말할 수 없고, 연이어 내리는 비 때문에 형세가 항상 하늘까지 넘실거릴 터이니 우 임금이라도 그 공을 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 수도(水道 : 물결)가 정비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번번이 넘쳤기 때문에 물결을 정비했을 따름이요, 곤이 치수한 9년이나 우가 치수한 8년 들 하늘에서 항상 쉬지 않고 비가와 물의 재난이 생긴 것은 아니다. 우가 공을 이루자 <대우모>에서 순 임금이 찬미하기를 “땀이 다스려지고 하늘의 운행도 제 모습을 찾았다. 육부(六府)와 삼사(三事)가 진실로 다스려져 만세토록 영원히 도움을 받게 된 것은 너의 공이다”라고 하여 먼저 땅이 다스려졌다고 말하였으니,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비가 개이고 난 개이고는 사람의 힘 때문이 아니라, 공로를 우에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비가 많이 오는 재앙은 일시적인 근심거리로, 개이고 나면 멈추니 만세토록 영원히 힘입을 것도 아니다. 천하의 물이 그 돌아갈 바를 얻지 못하여 지금 이미 넘쳐 흘러 백성들에게까지 해가

미치니, 지금 치수(治水)하지 않으면 후에 더욱 피해가 심할 것이니 이것이 요 임금이 근심한 까닭이다. 요 임금의 근심은 후세를 염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의 공로는 만세와 관련된 것이다. 성인이 재난을 만나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값다. 근심 속에 열심히 노력하여 감히 쉴 겨를이 없기 때문에 요 임금이 탄식하고 순 임금도 경계하며 우 역시 자식이 우는 것도 돌보지 않고서 그 공을 이루었다. 이미 땅이 다스려졌는데도 도리어 그 힘든 사업을 진술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끔 하고자 하여 전(典)과 모(謨)에 실었던 번번이 넘쳤기 때문에 물결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후세에 독자들이 그 매우 근심하고 근면한 것을 보고 반드시 대단한 비가 쏟아져 예상하지 않은 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요전>의 “9년이 되도록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글 때문에 끝내는 요 임금 때 9년 동안 비가 내렸다고 여기고 성인의 세상에 이룰 수 있는가 의심하였다. 심한 경우 후대의 임금은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으로 물이 범람하는 재앙을 불러왔는데도 우 임금이 홍수를 끌어다가 자신을 용서하고, 신하들도 반드시 우 임금의 호수를 끌어다가 아첨하는 말을 올렸다. 도리어 상고 시대의 성인이 근심하고 근면히 했던 일이 후세 군신들이 한가롭고 안일하게 지내는 핑계거리가 되었으니 작은 잘못이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

특기고

(38회)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4)

權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신병현감 한척(韓僑)도 4월 23일 왜적이 영천과 신령에 당도하기도 전에 도망치고 없었다. 한척은 황급하게 도망 중에 현감의 인수(印綬)를 깊은 산골에서 잃어 버렸는데, 충의공이 그를 아전으로 하여금 산골에서 찾아내게 하고 무리를 모으고 현감으로 하여금 현청에 나와 일을 보게 만들었다. 공의 가족들과 고향동네 사람들은 고향 중리의 20리 북쪽 있는 보현산(普賢山, 1224m, 청송과의 접경) 피난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충의공이 지난호에서 거론한 의병 창의를 하였

었다. 일관초기 파죽지세로 패전한 문제는 군사 지휘체계가 지방군의 반란을 염두에 둔 제승방략(制勝方略)이 문제가 있었고, 왜적이 일시에 20여 만 대군이 쳐들어오자 갈광질광한 지역의 고을 사포와 장수들의 도망 및 장병들의 사기의 저하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충의공은 격문으로 인근 고을 장사 100여인을 모아 금호강의 상류로 고향 중리와 영천고을과 하양을 거쳐 흘러가는 하천의 수위에서, 다시 왜적을 아전 암약하던 왜적의 간첩 잔당 20여명과 함께 일면 왜적 10여명을 쫓아 토벌하여 모조리 목을 베었다. 이로부터 영천과 신령 일대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 토적들이 왜적과 교통하여 백성을 약탈하며 조선의 군사의 기밀이나 왜적의 항도(嚮導)가 되어 괴롭히는 우환이 없어졌다.

왜적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우선 민가의 부역에 들어가 주발이나 대접을 도둑질하고 불을 지르고 다녔다. 왜란 당시 일흔살이던 무리 일부들이 왜적들이 탐을 내고 탈취하였던 것이었다. 일본의 음식기인 토기, 칠기, 도자기뿐만 아니라 종교와 사상에서부터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문화 기술을 전수받은 민족이었다.

그런데 조선 사람으로서 아전, 관노, 간달, 알대 산척(山尺: 삼마니) 장인(匠人)들 가운데 흉칙한 무리 일부들이 왜적들에게 붙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일제시대에도 국내 조선과 민주, 상해 임시정부와 중국의 곳곳에 일제의 이른바 ‘밀정’이 득벌섯 지역과 관련하여 우리 독립투사들의 인맥이나 지형지물 등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월부터 미리 차단해야 했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큰 고충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왜적을 제대로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징치하고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정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 특히 중과부적으로 일제와 왜적들의 힘이 강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였다. 충의공은 5월 들어 왜적 부역자들의 작폐가 심해지고, 특히 영천 관노 출신인 희손(希孫)이라는 자가 수백 명의 토적의 무

리를 형성하여 왜적과 연계하여 그 앞잡이뿐만 아니라 공을 모해하는 소문을 퍼트리고, 그들 스스로 토적(土賊)이 되어 인근으로 돌격하는 짓거리가 왜적 못지않았다. 이에 공이 창의한 지 열흘 쯤 지난 5월 16일 공의 본가인 중리 근처로 쳐들어 온 희손 일당 수 백명을 기묘한 계책을 세워 한천 근처에서 전투하며 모두 포획하고 희손 등 악당 우두머리들을 참수하고, 그 무리에 못모르고 휩쓸린 자는 풀어주어 대부분 평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18일과 20일에도 왜적의 침략이 계속되어 잔존한 왜적의 간첩 잔당 20여명과 함께 일면 왜적 10여명을 쫓아 토벌하여 모조리 목을 베었다. 이로부터 영천과 신령 일대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 토적들이 왜적과 교통하여 백성을 약탈하며 조선의 군사의 기밀이나 왜적의 항도(嚮導)가 되어 괴롭히는 우환이 없어졌다.

충의공은 격문으로 인근 고을 장사 100여인을 모아 금호강의 상류로 고향 중리와 영천고을과 하양을 거쳐 흘러가는 하천의 수위에서, 다시 왜적을 아전 암약하던 왜적의 간첩 잔당 20여명과 함께 일면 왜적 10여명을 쫓아 토벌하여 모조리 목을 베었다. 이로부터 영천과 신령 일대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 토적들이 왜적과 교통하여 백성을 약탈하며 조선의 군사의 기밀이나 왜적의 항도(嚮導)가 되어 괴롭히는 우환이 없어졌다. 왜적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우선 민가의 부역에 들어가 주발이나 대접을 도둑질하고 불을 지르고 다녔다. 왜란 당시 일흔살이던 무리 일부들이 왜적들이 탐을 내고 탈취하였던 것이었다. 일본의 음식기인 토기, 칠기, 도자기뿐만 아니라 종교와 사상에서부터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문화 기술을 전수받은 민족이었다.

論語解說(1)

논어 해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權貞澤



진나라 조씨(趙氏)의 가신 필힐(秘勝)이 중도(中牟) 땅에서 반기를 들고 공자를 붙렸는데 공자는 가려렸었는데 결국 가지 못했다. 장차 서쪽의 조간자(趙簡子)를 만나려고 황하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또 거백 목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지냈다. 영공의 전투와 군진에 대해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떠나서 다시 진나라로 갔으며, 이 무렵 계환자(絳桓子)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강자(康子)한테 반드시 공자를 부르라 일렀으나 그의 가신이 그만두라 말했으므로 염구(冉求)는 소환하였던 것이다.

다. 노나라 도성 북쪽의 사수(泗水) 위쪽에 장사지내고 제자들은 모두 삼년동안 심상(心喪)을 치르며 떠나갔는데 오직 자공(子貢)만은 무덤가 여막(廬幕)에서 무릇 육년 동안을 거처하였다. 공자는 리를 나갔고 자를 백어(白魚)라 하였으며 백어가 먼저 죽었다. 백어는 급(鰓)을 낳았는데 자(仔)는 자사(子思)이고 중용(中庸)을 지었다. 하(何)씨가 말하였다. “노논어(魯論語)는 스무 편이고 제논어(齊論語)에는 문왕(文王)·지도의 두 편이 따로 들어 있어서 무릇 스물두편인데 그 스물두 편 가운데는 장(章)과 구(句)가 노론(魯論) 보다도 훨씬 많으며, 고논어 공자가 살던 집 벽(壁) 속에서 발견되었고, 요원편(堯曰編)의 하장(下章) 자장문(子長問) 이하를 분리해서 한편을 더 독립시켰기 때문에 두 개의 자장편이 있었으므로 무릇 스물한편이 되

었다. “논어(魯論語)는 스무 편이고 제논어(齊論語)에는 문왕(文王)·지도의 두 편이 따로 들어 있어서 무릇 스물두편인데 그 스물두 편 가운데는 장(章)과 구(句)가 노론(魯論) 보다도 훨씬 많으며, 고논어 공자가 살던 집 벽(壁) 속에서 발견되었고, 요원편(堯曰編)의 하장(下章) 자장문(子長問) 이하를 분리해서 한편을 더 독립시켰기 때문에 두 개의 자장편이 있었으므로 무릇 스물한편이 되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논어의 글은 유자와 증자의 문집(輯)이 공자를 얻어 정치(治)를 하려 했는데 그 무렵 염구가 계씨의 장수로서 제(齊)나라와 싸워 공을 세우자 강자가 공자를 붙렸다.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왔고 이는 실로 애공(哀公) 십일 년 정사(丁巳) 해이고 공자의 나이(年)는 예순여덟 살이었다. 그러나 노나라는 끝내 공자를 등용하지 않았고 공자 또한 벼슬하기를 구하지 않았으며 서전과 예기를 편서하고 시경을 산정하고 음악을 바로잡으며, 역경의 단전(象傳)·계사전(系辭傳)·상전(象傳)·설괘전(說卦傳)·문언전(文言傳) 등을 서술하였다.

제자가 대략 삼천여명으로 있었고 일신의 육예를 통달하고 있는 자가 일흔 두 사람이었다. 동십사년 경신(庚申) 해에 노나라의 서부에서 사냥을 하다가 기린을 잡았으며, 공자는 춘추(春秋)를 지었다. 다음 해 신유(辛酉)년에 자로가 위나라에서 죽었다. 동십육년 임술(壬戌)해에 사월 기축일(己丑日)에 공자가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일흔셋이었

반기를 들고 공자를 붙렸는데 공자는 가려렸었는데 결국 가지 못했다. 장차 서쪽의 조간자(趙簡子)를 만나려고 황하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또 거백 목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지냈다. 영공의 전투와 군진에 대해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떠나서 다시 진나라로 갔으며, 이 무렵 계환자(絳桓子)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강자(康子)한테 반드시 공자를 부르라 일렀으나 그의 가신이 그만두라 말했으므로 염구(冉求)는 소환하였던 것이다. 공자는 채(蔡)와 섭(葉)으로 갔으며 초(楚)의 소왕(昭王)은 서사의 땅으로 공자를 봉하려 했지만 영윤(令尹) 자서(子西)가 불가하다 힘으로 그만 두었다. 다시 위나라로 돌아왔을 때 영공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위의 국군(國君)이 공자를 얻어 정치(治)를 하려 했는데 그 무렵 염구가 계씨의 장수로서 제(齊)나라와 싸워 공을 세우자 강자가 공자를 붙렸다.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왔고 이는 실로 애공(哀公) 십일 년 정사(丁巳) 해이고 공자의 나이(年)는 예순여덟 살이었다. 그러나 노나라는 끝내 공자를 등용하지 않았고 공자 또한 벼슬하기를 구하지 않았으며 서전과 예기를 편서하고 시경을 산정하고 음악을 바로잡으며, 역경의 단전(象傳)·계사전(系辭傳)·상전(象傳)·설괘전(說卦傳)·문언전(文言傳) 등을 서술하였다.

동십사년 경신(庚申) 해에 노나라의 서부에서 사냥을 하다가 기린을 잡았으며, 공자는 춘추(春秋)를 지었다. 다음 해 신유(辛酉)년에 자로가 위나라에서 죽었다. 동십육년 임술(壬戌)해에 사월 기축일(己丑日)에 공자가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일흔셋이었

위(衛)나라로 가서 자로(子路)의 동서인 안락추(安孺)의 집에 머물렀다가 진 나라로 가면서 광음(匡)을 지나 때 광음사람들이 공자 일행을 양호(陽虎)인줄로 착각하고 구금하였다. 말쑥이 해결되자 위나라로 뒤돌아가 거백목(蘧伯玉)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머물던 중 위영공의 부인 남자(南子)를 만났다. 거기서 송나라로 갔으나 사마환(司馬桓)이 살해하려 들므로 또 그곳을 떠나 진나라에 가서 사성정자(司城貞子)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삼년을 머물다가 위나라로 돌아왔지만 영공은 공자를 등용치 않았다.

논어서설(論語序說)

공자의 이름은 구(丘), 자(字)는 중니(仲尼; 공자에게는 형이 있었다)이고 그의 선조는 송(宋)나라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숙량홀(叔梁紇), 어머니는 안씨(安氏)이며, 노(魯)나라 양공(襄公) 이십 이년 경술(庚戌)해 십일월 경자일(庚子日)에 노나라 창평향(昌平鄉) 추읍(陬邑)에서 공자를 낳았다.

어릴 적 놀이를 할 때에도 늘 제사상 모양새를 벌려 놓고 예모를 갖추기를 즐겨 하였으며 성장하여 왜리(僂夷: 창고 관리직)가 되어서는 회계가 공평하였고 희생(犧牲 : 소·말·돼지·개·닭·거위 등)을 양육하는 직책을 맡아서는 짐승의 번식이 활발하였다.

주(周) 나라에 가서 노자(老子)에게 예(禮)를 물었으며, 노나라에 돌아오자 제자들이 더욱 많이 모여 들었다. 소공(昭公) 이십 오년 갑신(甲申) 해에 공자의 나이 서른다섯 때 소공이 제(齊)나라로 망명하고 노나라가 혼란해지자 제나라로 가서 고소 자(高昭子)의 가신이 되어 경공에게 등용되자 하였다. 경공은 니계尼谿의 전담으로 공자를 봉해주려 하였으나 안영이 불구하다 간했고 경공은 그 말에 미혹 되었다. 공자는 그 길로 노나라에 돌아오며 노정공(魯定公) 원년(元年) 공자의 나이 마흔 세 살 되던 해에 계씨(季氏)가 강족(強暴)하고 분수에 지나치게 굴다가 가신(家臣) 양호(陽虎)가 난동을 일으켜 정사를 제멋대로 전단(專斷)했기 때문에 공자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 시(時)·서(書)·예(禮)·악(樂)을 닦기에 몰두하였는데 따르는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동 구년 경자(庚子) 해에 공자의 나이 쉰하

특별연재

明心寶鑑

명심보감
본원종사연구위원 권혁채



화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북은 스스로 멀어진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

○ 景行錄에 日(경행록에 월) 恩義(은의)를 廣施(광시)하라 人生何處에 不相逢(인생하처에 불상봉)이리로 攀怨(수원)을 莫結(막결)하라 路逢豺處(노봉처)에 難回避(난회피)니라. 해설: (경행록)에 말하기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인생 어느 곳에선들 서로 만나지 않으리요.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파하기 어려우니라’고 하셨다. 참고: 경행록은 송나라 때 나온 책으로 떳떳하고 맑은 행위를 하라고 가르친 책이다. ○ 莊子-日(장자-일) 於我善者(어아선자)도 我亦善之(아역선지)하고, 於我惡者(어아악자)도 我亦善之(아역선지)니라 我既於人(이기어인)에 無惡(무악)이면 人能於我(인능어아)에 無惡哉(무악재)인저. 해설: 장자가 말하기를, ‘나에게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도 내 또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도 내 또한 착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아니 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니라.’ 고 하셨다. 참고: 既-이미 기 能-능할 능 哉-어조사 제, 비로소 제 ○ 東丘聖帝垂訓에 日(동약성제수훈에 월) 一日行善(일일행선)이 日行惡(일일행악)이라도 福雖未知(복수미지)나 禍自遠矣(화자원외)오 一日行惡(일일행악)이라도 禍雖未知(화수미지)나 福自遠矣(복자원외)니 行善之人(행선지인)은 如春園之草(여춘원지초)하여 不見其長(불견기장)이라도 日有所增(일유소증)하고 行惡之人(행악지인)은 如磨刀之石(여마도자석)하야 不見其損(불견기손)이라도 日有所虧(일유소후)니라. 해설: 동약성제가 훈계를 내려 말하기를, “하루 착한 일을 행할지라도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화는 스스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많은 불 뜻밖에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날로 더하는 바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닦는 숫돌과 같아서 갈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로 이지러지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셨다. 참고: 東丘聖帝(동약성제)는 도가에 속하며, 성명과 연대는 미상이나 성현의 한 사람이다. 聖-성인 성, 垂-드릴 수, 訓-가르친 훈, 離-비록 수, 闕-뜬일, 동산원, 增-더할 증, 磨-갈다, 損-덜 손, 虧-어지러질 휴 ○ 子-日(자-일) 見善 如不及(견선 여불급)하고 見不善 如探湯(견불선 여탐탕)하라.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것을 보거든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고 선하지 못한(악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과 같이 하라!’ 고 하셨다. 探-더듬을 탐, 湯-끓을 탕 <다음호에 계속>